

재래시장의 반격 “우리도 세일”

광주 양동·대인·목포 동부·자유 시장 경품·문화이벤트로 대형마트에 맞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기감을 느낀 전통시장이 세일 및 경품행사, 문화이벤트를 앞세워 대형마트에 도전장을 내민다.
 양동시장은 오는 9월24일 세일·경품행사를 열고 9월27일에는 전통씨름대회와 초청가수 공연을 여는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목포 동부시장은 같은 달 14일 초청가수 공연과 마술 공연을, 목포 자유시장은 10월1일 세일·경품행사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전국 210여개의 전통시장이 함께 전

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할인폭목과 수량, 이벤트 내용은 시장마다 다르다.
 대인시장과 양동 닭전길 시장도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인시장은 9월25일 비보이 공연, 퓨전국악, 폼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경품행사와 상인장기자랑도 연다.
 양동 닭전길시장도 9월26일 초청가수 공연 및 폼바 공연을 열고 경품 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이 세일행사를 비롯해 문화이벤트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형유통업체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광주 재래시장연합회 정대규 회장은 “전통시장이 할인이나 경품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반발 의식 롯데슈퍼 새 점포 출점 연기

홀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장이 인천에서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롯데슈퍼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새 점포 출점을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롯데슈퍼는 애초 24일 문을 열 예정이던 상계7동점, 영창점, 신정점 등 3개 점포의 개장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점포를 열 수 있는 상황인지 주변 지역 상인들의 여론 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업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슈퍼가 개장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계획을 바꾼 것은 홀플러스가 인천과 광주, 안양 등에서 새 점포 개장 문제를 놓고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한국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쓸 때는 로열티를 자사제품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연합뉴스



기아차 ‘모닝 LPI’ 에너지 위너상

모닝 LPI는 경차 엔진에 LPG를 연료로 쓰는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차량으로, 가솔린을 쓰는 동급 경쟁차보다 연간 유류비를 86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는 점 등 친환경 기술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또 최근 출시된 쏘렌토R이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인정돼 ‘고효율 자동차 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쏘렌토R 고효율부문 수상

기아차는 23일 LPG 경차인 ‘모닝 LPI’가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이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일터 하반기 금융권 취업 전략

인턴 활용 실무 능력 키워라

광주은행 70~80명 인턴십 운영

연중 가장 큰 규모의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은행·증권 등 금융권도 신입 직원 채용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이어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금융권의 대변혁이 예고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하반기 금융권의 채용규모는 ‘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일부 대형은행은 경기상황에 따라 채용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은 아직 하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매년 하반기 4년제 대학졸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사원 채용을 해온만큼 올해도 예년 수준의 정규직 채용이 예상된다. 상반기에 인턴사원 87명 가운데 6명을 지난 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70~80명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9월에 채용공고로 내고 200명 가량을 뽑을 예정으로 이 가운데 20%는 인턴사원으로 채용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9월 말~10월 초 200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며 외환은행의 채용규모는 100명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100명)보다 적은 수를 뽑기로 했으며 농협중앙회는 9월말까지 200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IBK투자증권이 다음달 31일까지 경력직 100여명을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모집 부문은 ▲지점영업·업무 ▲법인영업 ▲캐피탈마켓 영업·트레이딩·기획 ▲기업금융(IB) 분야 등으로 학력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인턴 경험 등 실무능력 키워야>=금융권 채용은 통상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 등 은행은 학점과 토익 등 영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한후 직무능력과 적성

“DVD급 영화 한편 단 10초에 OK”

방통위, 기가급 인터넷 도입 추진

DVD급 영화 한편을 단 10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의 광랜보다 10배 빠른 속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A)은 24일 형태급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성태 NIA 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이후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가 인터넷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래 네트워크기술 발전과 서비스 수요 전망을 반영, BcN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가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3-227-9940
 수원점: 031-752-9940
 목포점: 061-252-9200
 울산점: 053-851-2422

7월 24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상행

OZ 341 무안 ↔ 북경 (14:50~16:15)
 OZ 342 북경 ↔ 무안 (10:40~13:50)

북경 4인실 : 469,000~ (NO.탑, NO.음식)

항공료, 세금, 개인 경비, 중국 단체비자비용

광주 MBC 문화방송 후원업체 | 060-228-6070